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1.(일) 11:00 / (지면) 2026. 11. 02.(월) 조간 | 배포 2026. 10. 30.(금) 오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통합 추진한다

- 선박 안전 관리와 해상 교통 시설 관리 기능의 연계로 안전한 바닷길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9월 3일(목)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해양 교통 안전관리 기능은 두 기관에 나뉘어 있다. 공단은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기술원은 바다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등대, 등부표 등 항행 교통 시설의 현장 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선박과 운항 관리 및 항행 안전시설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항로 지정 및 선박 교통관리 등의 해상교통 정책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표지 시설 설치·관리 등의 항행 시설 정책을 종합하여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담당자	사무관	최종영 (051-773-5818)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기준 (051-773-5870)
		담당자	사무관	이철희 (051-773-58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